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2008.10

출장기간: 2008.10.5 - 2008.10.12

출장지: 프랑스, 영국

출장자: 국토·지역연구실 안근원

차 례

1. 출장개요	1
2. 조사 및 면담내용	3
1) 프랑스 상원 입법전문위원	3
2) 프랑스 상원의원	5
3) EPAD (La Defence 관리청)	7
4) 프랑스 현지기업 간담	9
5) System@tic 경쟁거점지역	11
6) IAURIF (프랑스 수도권연구소)	13
7) 파리 부시장	15
8) Government Office for London (GOL)	17
9) Greater London Authority (GLA)	20
10)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CBI) 영국 전경련	23
11) 영국 현지기업 간담	25
12) Dockland (런던 도시재생지역)	27
3. 정책적 시사점	29
1) 영국	29
2) 프랑스	34

1. 출장개요

□ 일시 : 2008. 10.5(일) - 2008. 10.12(일)

□ 방문지역: 프랑스(파리대도시권), 영국(런던대도시권)

- 파리권: 프랑스 상원의회, IAURIF, system@tic, EPAD, 파리부시장 등
- 런던권: GOL, GLA, CBI 등

□ 출장목적

- 주요국(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사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예상 쟁점 사항에 대한 방안 모색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부처 공동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국토연구원의 적극적 참여

□ 출장인원

- 안근원 책임연구원 (국토·지역 연구실)

※ 타 기관포함 총 5명

기관	성명	직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임영석	사무관
	이상우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재용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전경련	양금승	규제개혁 팀장
국토연구원	안근원	책임연구원

□ 출장일정

날짜		방문 기관
10.5(일)	09:50~14:40	• 인천 출발 → 파리 도착(KE5901)
10.6(월)	12:30~15:00	• 프랑스 상원 입법전문위원 - Benoit Quennedey(Administrateur Commission des Finances) - David Alphand(Administrateur Commission des Finances)
	15:10~16:30	• 프랑스 상원의원: Philippe Dominati(Senateur de Paris)
10.7(화)	10:00~12:00	• La Defence(파리 국제업무지구) 답사
	14:00~16:00	• EPAD (La Defence관리청) - Ludivine BONNEAUD(Direction de l'Amen- ogement et du Developpement)
	19:00~21:30	• 현지 진출기업 간담 - 김석필 상무(삼성전자 프랑스판매법인 대표), 박광채 부장
10.8(수)	11:00~12:30	• System@tic - Thierry Louvet(International Affairs Manager)
	14:30~16:10	• IAURIF - Gilles Antier(International Activities Director) - Vincent Fouchier(Directeur general adjoint)
	19:00~21:30	• 파리 부시장 - Pierre MANSAT(Adjoint au Maire de Paris Charge de Paris Metropole et des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Ile-de-France)
10.9(목)	10:13~11:28	• 이동(유로스타)(파리 ⇒ 런던)
	14:00~15:30	• Government of London - Andrew Melville(Head of Planning and Housing)
10.10(금)	10:30~12:30	• Greater London Authority - Jhone Janett(Strategic Planning Manager)
	15:15~16:15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 Bryan Cress(Head, Asia Pacific Development) - Luke Jouranides(Senior Policy Adviser infrastructure Group) - Ms Minakshi Roy(Senior Policy Advisor)
	19:00~21:30	• 현지 진출기업 간담 - 최윤호 상무(삼성전자 유럽법인 부대표), 손병일 부장
10.11(토)	09:00~15:00	• Dockland 지역 답사
	21:30~16:25	• 런던 → 인천 10.12(일) 16:25 도착 (KE 908)

2. 조사 및 면담내용

1) 프랑스 상원 입법전문위원

- 면담일시: 2008.10.6(월)
- 면담자:
 - David Alphan(Administrateur Commission des Finances) : 파리시의회 의원 (UNP); 정부 상원 전문위원 겸임
 - Benoit Quennedey(Administrateur Commission des Finances)

☐ 국가경쟁력 강화를 파리시 토지개발의 4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 자동차대수 제한 등 운송정책과 장기임대 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 환경문제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파리시의 4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47년 Gravier가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을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70년대까지 지역균형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 프랑스에서 파리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80년대 후반부터 EU통합에 대비하여 유럽내 대도시와 경쟁에서 파리의 경쟁력 제고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어 종전의 균형정책을 재검토하게 됨
 - 특히, 리스본, 마드리드 등 파리이외 다른 국가의 대도시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함

☐ '05년에 '12년의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런던시에 패배한 이후 파리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음

- 특히, 파리의 경우 국제전시회 개최횟수가 주변국의 경쟁도시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

☐ 일드 프랑스(파리 주변의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82년 르데방

스, '85년 아그레망 적용 폐지)는 외국인 투자와 국내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주된 이유였음

- 지역의 실업률이 8%임에 비해 파리의 실업율이 10% 정도로 높은 실정이 감안됨

* 르드방스(부담금제도), 아그레망(공장 및 사무실 신축허가제)

- 특히, 파리시의 인구는 210만명 정도이나 런던은 750만명
- '01~'02년 파리시의 신축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강화(50M ⇒ 37.5M)하여 '환경과 삶의 질' 문제를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나,
 - 전반적으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파리시민의 의견을 수렴중임
 - 파리시와 지방을 연결하기 위해 파리시 주변에 6개 프로젝트(외곽연결문)는 부도심 육성차원에서 개발하여 사무실 및 공장유치계획을 추진중이나, 파리시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음
- 파리시는 면적(104km²)이 협소하여 대기업을 위한 사무실과 공장을 입지할 지역이 거의 없으나, 파리시 주변에 6개 프로젝트(마천루)를 추진하여 사무실 및 공장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파리외곽의 순환고속도로는 폐쇄하여 방사형으로 일드 프랑스 지역과 연결할 계획임
 - 19세기 산업도시로서의 파리시의 기능은 사라지고 있으나, 파리 주변일드 프랑스 지역에서의 공장입지는 가능함
- 파리시는 최근 외국인 우수두뇌 유치에 관심이 많아 아파트 제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음
 - 고층빌딩은 외국기업 유치목적이고 학교는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
-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파리가 국제경쟁에서 벌어들이는 돈(세금)으로 지방지역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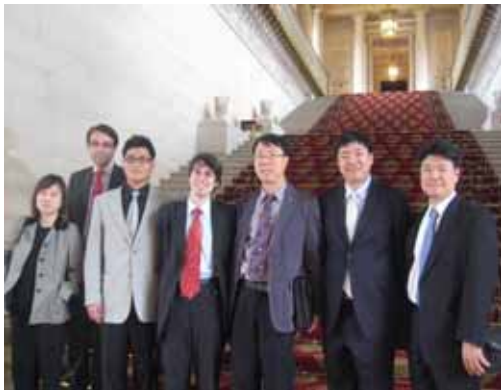
□ 도시계획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 심의기구이며 의결기구인 꼬뮌(Commisson de Site)은 파리시 의원과 도시·건축·환경 전문가, 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됨
- 도시계획 입안을 지자체 입안할 수 있으나, 외곽지역 마천루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안한 경우도 있음

□ 파리 도시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주체가 많아 큰 문제로 작용함

- 프랑스 정부는 우파, 파리는 좌파가 장악하여 의견합치가 어렵고, 꼬뮌(Commune) 자체의 독립성이 강함

상원 입법전문위원 면담



2) 프랑스 상원의원

- 면담일시: 2008.10.6(월) 15:10-16:30
- 면담자:
 - Philippe Dominati(Senateur de Paris)

□ 파리시 국민총생산(GDP)은 일드 프랑스 지역의 1/3으로 드골대통령('66년) 이후 파리중심의 정책을 분산정책으로 전환함

- 미테랑 대통령 집권이후('81~'95) 15년간 균형발전(분산정책)을 지속해옴

- 파리시, 일드 프랑스 레지옹은 좌파정부의 정책이 지속됨
- EU 통합이후 통화단위가 통일되고 국가내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진전되면서, 파리시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투자여건이 악화됨을 계기로 종전의 분산정책을 경쟁력 제고로 전환하게 됨
- 파리시는 100개의 데빠르망(department)와 10개의 레지옹(region)등으로 구성됨
- 레지옹에 따라 관장업무가 상이하나, 레지옹은 결정권이 없고 세금, 토지이용, 고용문제 등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함
- 프랑스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책임여부를 가리는 주체가 없음
-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은 런던보다 마드리드, 리스본 등 경쟁도시에 비해 파리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세금정책에서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05년 런던시와 '12년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파리시가 패배하면서 우파대통령을 선출하고 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파리시는 투자유치정책으로 집중하게 됨
- 파리시는 사회당 등 환경론자 및 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고(파리시장: 메르트랑 들라노에) 있으나, '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이후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정책에 큰 변화를 보임
- 파리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나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공적 의지가 있음
- 각 지자체마다 투자위원회가 설치되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없음
- 그랑 파리(Grand Paris)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향후 몇 년이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음



3) La Defence(파리 국제업무지구)

- 면담일시: 2008.10.7(화) 14:00-16:00
- 면담자:
 - Ludivine BONNEAUD(Direction de l'Amen- ogement et du Developpment)
- '58년 파리의 서북부 외곽지역에 건설된 첨단문화 복합도시로 드골대통령에 의해 농촌지구를 업무지구로 개발하였음
- 일드 프랑스 우드센 지역에 1차 세대는 60년대 건축물임
 - '00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제적 수요에 부응하여 2,000m²이상 건축형태 변화, 새로운 지구건축은 '07년 입안하여 50주년이 되는 '08년에 건축중임
- '07년 라데팡스 신축법(라데팡스 신축플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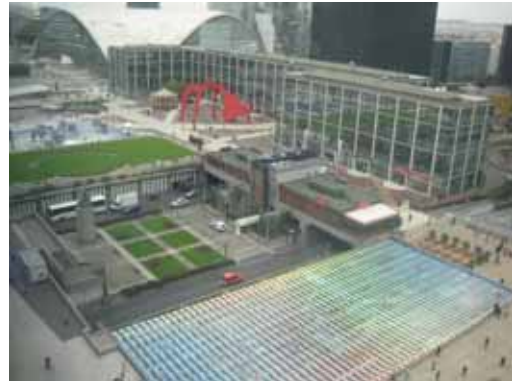
- 舊건물의 역동성을 리노베이션하여 뉴 타운 건설(Signal Tower)

⇒ Re-launch Plan(A Long term urban plan)

- 지속가능한 재생(업무/주거지구) 건설
 - －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상형 도로 건설
 - － 공공 교통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 건축공학적 대담성
 - － 기술채신, 기능적 복합건물 등
- 30만m² 업무지구를 신설하여 입주기업 확보에 노력함
 - － 첨단환경의 질 고려, 10만m² 주거지구 건설(20% 임대, 80% 분양)
 - － 업무지구의 경우 건축높이규제를 완화함
 - － 파리시민은 성격상 현대식 신도심인 라데팡스 지역보다 전통적인 구도심을 선호하여 파리시에서 라데팡스 지역으로 인구유입은 미미함(상주인구 : 2만명 정도)
- 3차 서비스 산업위주로 입주하고 제조업체 입주기업은 없음
 - －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규제는 없으나, 환경 및 건축규제는 강함

라데팡스 전경 및 확장계획도





4)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삼성전자 프랑스 판매법인)

- 면담일시: 2008.10.7(화) 19:00-21:30
- 면담자:
 - 김석필 상무(삼성전자 프랑스판매법인 대표), 박광채 부장
- 삼성전자 프랑스 현지법인은 파리 외곽지역에 350€/m²로 임대하여 연 100만€를 임대비로 지출함
- 프랑스는 법인세 33%이나 특별세(교육) 3%로 총 36% 세부담
 - 의료보험, 연금/산재보험(개인 20 : 법인 50 부담)으로 종업원의 인건비 30%를 사회보장성 부담금으로 지출함
 - 프랑스 공무원은 법인세 감면에 재량권을 갖고 있음
-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핸드폰과 TV의 시장점유율 1위이며, 연 37억불 매출실적을 보임
- 전통적으로 독일은 분권화, 프랑스는 파리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해왔으며, 4대문안의 관광중심으로 발전함
- '60~'70년대 중반이후 신경영과 글로벌화에 따라 質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되었으며, 도심지 사무실의 복합화가 전환됨

-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친기업적 환경이 취약함
 - － 예컨대, 비자발급의 경우 영국은 책임자 나서 3~4일 이내에 완료되었으나, 프랑스의 경우 2월 신청하여 10월경에 비자가 나오며, 관련서류도 사과박스 4개분량을 요구한 후에야 투자가 결정됨
 - － 영국은 노동개혁으로 노동법상 고용유연성이 높은 편이나, 프랑스는 법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의 경우 종업원중 10%가 법정소송 제기)
- 영국은 제조업 보다 3차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외국기업이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으로 이전 추세임
 - － 생산거점의 최적지로 인건비가 낮은 지역은 선호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우주항공산업, 철도운송, 화학, 무기, 디자인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농업생산이 많으며 제2 농산물수출국임
-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정신을 기치로 지난 20년간 공산주의 좌파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음
 - － 파리는 노동조합이 강하며 약자보호 사상이 의식속에 박혀 있음
- 파리의 땅값은 연 8~10%씩 상승하여 프랑스인의 거시경제 체감지수는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임
 - － 프랑스인은 개인 치장(패션, 향수 등), 휴가와 음식문화를 즐기는 경향이 높고, 원천기술이 산업의 핵심요소임
- 프랑스 교육제도는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예비고사에 주

관식 출제비율이 80%에 이르며, 13만명 정도가 채점관으로 동원됨

- 그랑제꼴(Grandes coles) 출신의 소수 엘리트그룹이 사회를 주도하며, 대다수는 현실에 안주함
- 1/3가량이 낙제경험이 있으며, 정반합의 논리구조에 강함

5) System@tic (경쟁거점지역)

- 면담일시: 2008.10.8(수) 11:00-12:30
- 면담자:
 - Thierry Louvet(International Affairs Manager)

☐ 경쟁력 거점의 5가지 주요 전략('04년 정부산업정책)

- 프랑스 산업경쟁력 강화
- 경제성장의 진전
- 프랑스 기술발전 노력
- 쇄신전략의 기업센터
- R&D 전략 투자와 기술 유도

☐ 7개 글로벌 클러스터에 외국기업 연구소 유치

- 국가재정('05~'08) 15억€ 연구개발에 투자함
- 한국의 산업기술평가원과 유사한 기관으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역할을 함
 - '05년 6월 시작, 8대 대기업, 200개 중소기업, 14개 연구교육센터, 15개 지자체가 참여함
 - 10만 2,000개의 파트너십 일자리, 32만개 일자리, 100개 이상

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함

- 정부 산하의 비영리협회로 사적기관으로 전국을 커버하고 있음
 - 사무국에 16명 직원 상주, 국가의 재정지원을 하며, 대기업들의 필요로 제안한 기구임
 - 입주지원 지원을 위한 정책건의기능은 없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함
 - 재정 지원의 중간자적 역할로 프로젝트 인가, 부지마련 알선 등
 - '06년에 모토롤라 등 연구소 설립을 지원함
 - 중앙정부 40%, 지자체 10% 재정을 지원함
 -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함

system@tic 면담



6) IAURIF(Institut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Ile de France, 프랑스 대도시권국토도시연구소)

- 면담일시: 2008.10.8(수) 14:30-16:10
- 면담자:
 - Gilles Antier(International Activities Director)
 - Vincent Fouchier(Directeur general adjoint)

□ '60년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a Public Foundation의 성격이던 것이 '82년 일드 프랑스 Regional Council의 산하기관으로,

- 지방의회 의장의 주도아래 일드 프랑스의 지역개발과 분산정책을 연구해 옴
- 총 210명의 스태프, 160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 연구+대학 등 학문 목적으로 운영됨
- 민관합동의 사단법인 형태이며, 재정은 광역정부 81%, 중앙정부 3.5%, 민간용역수행비 2%, 펀드기금운용·유보 등 3.5%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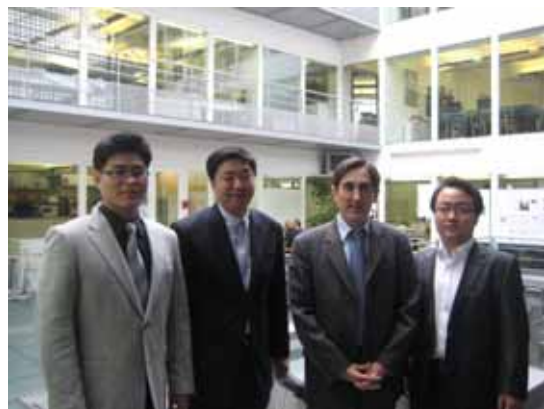
□ SDRIF(일드 프랑스 광역계획)이 '08년 9월말에 결정됨

- 일드 프랑스 레지옹은 80%가 숲, 미개발지역으로 '05년 프랑스 전체인구의 18.4%인 1,140만명이 전국토면적의 2.5%인 12,012km²에 거주함
 - 8개 데파르트망과 1,300여개의 코뮌으로 구성됨
 - '60년대부터 일드 프랑스내에 쾌적한 주거공간과 고용창출을 위해 5개 신도시 개발정책 추진('60년, '65년, '76년, '94년) : 5개 신도시에서 '68~'99년간 총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95년 계획의 효력이 발휘되었으나, '05년부터 일드 프랑스 레

지웅에서 관할하기 시작함

- 도기본광역계획을 레지옹에서 결정하면 꼬뮌은 이를 준수하고, 중앙정부는 준수여부를 감시하게 됨
- '94년 계획수립시 부정적 여론이 많았으며, '04년 계획결정과정에서 의견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되었음
- 19명의 심사단이 구성되어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180번 시행하였으며, 1,300회의 공청회를 거쳐 '04년 기본방향이 확정됨
- 지역격차 해소(운송시설, 주거문제 등), 에너지 및 환경문제(지구온난화 대비 농지 및 산림보호), 국가경쟁력 강화로 경제적 투자매력있는 지역개발(라데팡스 등)이 주요 계획사항임
- 폭넓은 네트워크 체계의 대중교통망과 SOC 확충 등
- 계획발표로 인해 한국과 같은 부동산투기의 발생가능성은 없음
- '60년대부터 다른 지역의 개발과 병행하여 파리지역을 개발함

IAURIF 면담



7) 파리시 부시장 면담

- 면담일시: 2008.10.8(수) 19:00-21:30
- 면담자:
 - Pierre MANSAT(Adjoint au Maire de Paris Charge de Paris Metropole et des relations avec les collectives territoriales d'Ile-de-France)

☐ '80년대까지 모든 정책이 파리 광역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옴

- 1900년초의 분산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으나, '80년 중반이후 파리를 Metropolitan으로 육성하여 파리의 경쟁력을 지방으로 확산시킬 예정임
 - 특히, 파리 자체는 '95년 계획에서 아무도 찬성하지 못해 새로운 파리플랜이 실행되지 못함

☐ 일드 프랑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파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프랑스 전체를 대표할 만한 것이 없음

- 광역파리의 문제(인구 800만)는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번 돈을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문제로 파리지역의 경쟁력이 없음을 반증함

☐ 일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일드 프랑스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확대되었음

- 일드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규제완화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인프라가 충족안된 반면, 신설 사무실의 50% 가량이 라데팡스 지역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95년 SDRIF에는 균형개발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꼬핀이 많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의 정책실행으로 연결되는데는 실패함

- 균형개발의 대안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 경쟁력 거점(예시: 일드지역에 시스테매틱(Systematic)을 설치하여 연구개발의 대안으로 활용함
- 많은 자치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되어 파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경제계(중소기업- 대기업 포함)와 정치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의사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이 없는 것이 문제로 일드 프랑스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함
 - 정치권, 경제계 대표가 클럽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좌파와 우파는 의견이 대립되지만 역동적인 정치과정이며, 파리지역을 Metropolitan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함 (우파는 그랑 파리(Grand Paris), 좌파는 파리 Metropolitan을 선호)
 - 파리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력 및 조화가 필요함
 - 일드 프랑스의 광역단체의 최고책임자는 파리시내 꼬뮌대표보다 실권이 없어 진행중인 안전과 의제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지방의회가 승인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인정하면 실효성이 없음
- 파리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간의 타협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로 1920년대부터 파리시는 부속도시에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지방에 대한 간섭이 많았음
 - 파리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염배출공장의 지방이전, 서민 임대주택 건설 등을 주변지역에 강제로 입지케 하는 수도로서 인정되는 역할이 있음
 - 파리시 및 일드 프랑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신, 파

리시는 지방의 자율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상할 수 있음

- '05년부터 꼬된 130개간 1:1 대등한 협약을 체결함

파리부시장 면담



8) Government Office For London (GOL)

- 면담일시: 2008.10.8(수) 19:00-21:30

- 면담자:

- Andrew Melville(Head of Planning and Housing)

□ 10개 정부부처를 대표하여 정부정책과 발전계획 등을 런던에 제시(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GOL을 설치함

- GOL은 교통, 경제개발 등 4개부서로 구분 3개 자치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자치구 등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중간자 역할이 주된 임무

- 대규모 개발계획허가에 대한 조건부여 → 지자체 항소 → 주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됨

- 중앙정부와 런던의 정책방향이 서로 상충할 경우 최종결정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함

□ 중앙정부 계획과 자치단체 계획간의 개발계획의 정합성을 중시함

○ 시자체 ⇒ 도시계획(UPP) ⇒ LDF로 전환중임

○ 중앙정부도시계획심사위원회(독립기관)에서 결정함

— GOL이 주무부장관을 대표하여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

□ '60~'70년대 이후 높은 비용, 인구증가, 지방이전시책에 의해 런던인구 및 산업에 대해 억제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 '76년 IMF 외환위기이후 사무실개설허가제(ODP, '79), 공장 개설향가제(IDC, '82)등의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을 유치중임

— 런던 동부지역에는 '30년대부터 자동차공장이 가동중이며 런던 시내에 식품공장이 있음

— 런던시내에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환경문제 등으로 공장입지가 곤란하며, 고부가가치의 금융서비스 위주의 업무용 빌딩이 유치됨

○ 현재 어떤 종류의 사무실의 경우에도 Local 플랜에 부합하여 개발해야 하며, 계획허가제 아래에서 허용됨

— 계획허가제는 지방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해 도시계획허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신축성이 강하지만 지방정부가 최종 계획을 결정함(지역투자효과, 환경, 교통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대규모 개발계획 검토시 임시적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화학등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계획안을 제출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심의하게 됨

⇒ 계획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준비서류가 많은 것이 단점임

□ 런던시 인구는 750만명('06)에서 871만명('26)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EU 국가와 영국 지방으로부터 사회적 진입과 인구 순증가에
서 비롯됨
 - － ‘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증가가 예상됨. 특히, 런던
동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개발 활성화
가 필요함
- 런던은 영국내 대도시와의 경쟁보다 세계 주요 거대도시와의
경쟁이 더 중요함
 - － 런던은 물류서비스 등 업무용 빌딩유치가 주목적으로 뉴욕, 파
리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증대 효과
가 기대됨
 - － 인프라는 도로보다 공공교통, 지하철, 철도등의 투자에 집중
함
- 영국은 녹지(그린벨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기조를 유지함
 - 그린벨트의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나, 개발권은 국가가 갖고
있어 미개발에 보상은 없음
 - 런던정부는 런던시장에 특별한 개발자제를 요청함

Government Office for London 면담



9) Greater London Authority (GLA)

- 면담일시: 2008.10.10(금) 10:30-12:30
- 면담자:
 - Jhone Janett(Strategic Planning Manager)

☐ 런던 수도권은 런던시, 동부지역, 남동부지역 등 3개 정부가 관여함

- 런던은 유럽 최대 도시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구 750만명('06)임
 - '30년대부터 그린벨트를 지정·운영하여 19세기 이후 가장 큰 치적은 그린벨트 유지정책이라 생각함
 - 33개 지방정부(boroughs)로 구성된 자치적인 정치구조, 시장과 런던의회 의원선출 2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됨(2개 자치구당 1인 선출, 11명 비례대표)
- 런던과 주변광역지역간의 관계는 느슨한 수준임
 - 카운티(County), 노동당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위해 화합되지 않음

☐ GLA의 기본 목적 및 권한

- 경제성장과 복지증대, 사회발전과 융화, 환경개선, 기타 건강증진,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평등도 중요한 요소임
- 4개 위원회의 의장지명권한도 보유하며, 방재와 치안의 경우 중앙정부와 충돌됨

☐ 런던 플랜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현존 런던지역내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와 인구성장, 세계도시로서의 런던시 역할 제고, 기후변화와 환경의 질 고려, 사회적

통합 등임

- 기존 토지이용은 공간정책으로 '04년도에 런던플랜을 채택함
 - '00년 GLA을 설립하고 2년반의 논의결과 '04년 런던플랜이 확정되었으며, 기존 플랜을 업데이트도 추가적으로 2년 반정도 소요될 예정임

□ 뉴욕,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세계 거대도시와의 경쟁을 중시함

- 남동부지역은 GDP의 42% 차지함
- 런던의 경제성장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런던의 경제는 파산될 것임
 - 최근 들어 젊은 연령층의 전입인구가 증가세인데 대학교육을 위해 유입되어 정착하는 경우와 국외로부터 유입된 경우 등 런던은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됨(뉴욕보다 세계적인 도시 성격을 띠)
 - 소비는 위성도시에서 주로 하게 되어 런던시 발전의 장애요인임
 - New Town 건설, 노인층의 사망률 저하, 매력적인 운하정비, 대처정부의 금융개방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 도시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런던시는 복합용도 건축의 개발붐이 일고 있음

□ 사무실개설허가제(ODP, '79), 공장개설허가제(IDC, '82)등의 규제 완화이후 투자증가는 미미한 실정임

- 런던과 그 주변지역은 고임금, 고지가 등으로 제조업 자체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존 외투기업들이 탈영국화가 많은 실정임
 - 런던은 금융서비스 중심도시로 공장취업인구는 전체의 2~4%

에 불과하. 공업용지는 8,000ha → 4,500ha로 감소추세임

□ 최근 들어 제조업 유치보다는 금융 및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중심으로 산업을 유치하고 있음

○ 런던시내는 높은 땅값과 환경문제 등으로 공장입지 가능지역은 거의 없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중심으로 산업이 입지하고 있음

– 20년후 9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갖고 있으며, 금융, 비즈니스, 법률, 회계 등이 주요대상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에 관심이 많음

– 도심지역은 600£/m²(137만원) , 웨스터민스터는 1,300£/m²(297만원)으로 제조업 본사(지부)는 중국, 인도 등 외국으로 이전하게 됨

⇒ 영국제조업의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하는 4가지 이유

① ICT의 경우 전자시스템의 도입으로 타이핑 업무등 단순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② 고임금의 영국을 탈피하여 저임금지역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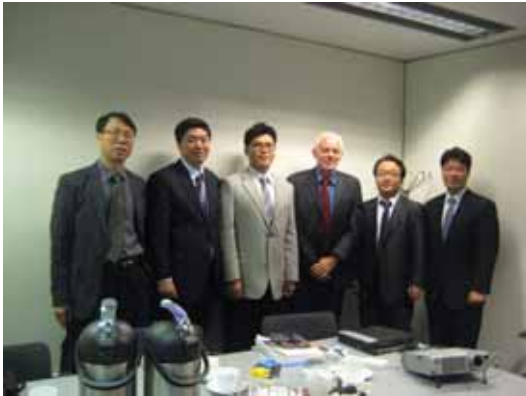
③ 봄베이 지역에서 영국항공(BA)의 티켓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계화 영향

④ 기업지출의 85%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등

○ 런던권은 기회지역(개발가능 지역)과 집중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개발지역에 인프라를 우선 공급함. GLA와 지방정부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지방마다 요구사항이 다름

○ 중앙정부는 고층빌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으로 70£/m²(16만원), 웨스터민스터는 400£/m²(91만원) 부과하나, 토지사용료에 비해 부담이 낮다고 평가함

Great London Authority 면담



10)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CBI)

- 면담일시: 2008.10.10(금) 15:15-16:15
- 면담자:
 - Bryan Cress(Head, Asia Pacific Development)
 - Luke Jouranides(Senior Policy Adviser infrastructure Group)
 - Ms Minakshi Roy(Senior Policy Advisor)



□ 규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데, 런던 레벨에서 규제는 독특

- 환경과 교통분야에서의 규제가 많은 편이며, 런던에서는 규제 완화 추세임
 - － 일반적으로 규제성향은 도심환경오염문제, 토지점유에 많고, 서비스산업, EU환경목표 달성, 정치적 경향, 라이프 스타일 등 삶의 패턴 변화에 따라 규제수준이 달라짐
 - － 런던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주택공급이 주요 현안이며, 혼잡통행료로 8£/1회가 부과됨
- '82년 규제완화는 산업 침체, 제조업 감소 등에서 비롯됨
 - － 유흥지에 공장을 유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음
 - ⇒ 도클랜드의 캐너리워프 지역의 산업유흥지에 CBD(중심업무지구)를 조성하여 더 생산적인 시설의 입지에 치중함
 - － '97년 노동당 정권이후 55% 유흥지 개발률을 80%이상으로 높임(기존 지역의 개발에 집중)
 - － 런던시의 목표는 규제완화로 런던이 대도시중 유일한 성장도시로 사람과 기업들이 유입됨

□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영국의 문제로 작용함

- 주택, 사무실, 공장의 허가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으며, 개발권이 국유화되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 － Local Plan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토론(협의)를 거쳐 산업유흥지에 건설을 유도하고 있음
 - － 공장 인·허가 등에 많은 분량의 서류제출을 요구함
- CBI는 최근 지자체가 도시계획허가 신청후 13주내 허가를 안해

주면 정부가 비즈니스 보증해주도록 하는 정책건의가 수용됨

- 중앙정부는 비즈니스 TAX를 지방정부의 보너스에 지원하여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제조업 등 2차산업은 영국의 국제경쟁력 열위로 육성정책을 포기함

- 영국은 금융, 관광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11)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삼성전자 런던판매법인)

○ 면담일시: 2008.10.10(금) 19:00-21:30

○ 면담자:

- 최윤호 상무(삼성전자 유럽법인 부대표), 손병일 부장

□ 삼성전자 Wynyard 지역 공장투자 및 철수 경과

- '93년 반덤핑 규제도입, EU 통합에 대비하여 영국, 스페인(바르셀로나), 헝가리(빌리엄 공장)에 투자계획을 검토함
 - 英 상공부장관이 이견희 회장과 면담후 영국 투자계획을 결정함
- 영국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삼성전자를 공장을 유치함
 - 원야드의 녹지지역(25만평)에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평당 4.5£로 공급함(용도변경의 특혜시비) → 추후 25만평 투자확대(당시 수원공장은 40만평)
 - 도로·전기·용수 등 기본인프라의 무상 제공이외에 1,000만 £의 Grant(보조금)를 지급하고 추후 300만£가 지급됨

- 공장 인·허가처리를 위해 Council에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런던에서 담당관이 파견되어 추진함('93년 하반기~'94년 상반기: 1년 소요, '95년 9월 공장가동)
-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비행기로 출장왔으며, 보조금은 구좌이체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해준

○ 공장 철수 배경 및 추진경과

-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추가 투자가 축소되고, 동구권이 개방되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빌리엄 공장(10만평)을 건설함
- 원야드 공장의 경우 인건비 상승(2~3배), 물류비 부담증가 등으로 8년간 공장운영에 따른 적자가 누적됨
- 영국정부의 Grant(총 1,300만£)는 낮은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함 → 적자해소를 위해 1,500명 구조조정을 단행함
- '03년 제2생산기지로 슬로바키아로 이전 결정 →이회장이 영국정부와 마찰없는 조건으로 승낙함 → '04년 1월 공장 폐쇄함
- 원야드는 토니블레이 인접지역구이고 제조업의 연관효과(고용효과)가 커서 공장철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음
- 당시 영국의 제조업 경영환경 악화로 외국기업의 이탈이 심화됨; 니산자동차도 영국여왕의 접대와 그란트를 받았는데, 잔류 결정
 - '90년대 영국으로의 외자유치가 많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비롯됨. 대처정부가 노동개혁을 단행하여 항만/철도/운송노조 이외에는 노조의 힘이 크게 약화됨

- 단지 투자가 축소되면서 교육동이 과잉투자되어 외부에 사용을 임대함

□ 영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이며, 금융서비스 산업이 강함

- 의약, 화학, 항공, 지식서비스(법률, 교육, 회계, 금융) 등

□ 기타 내용

- 녹지 전용시 환경보호등을 위한 용도변경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많음
- 삼성전자 런던법인은 영국에서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노키아(29%)에 이어 2위(28%) 유지하나, 조만간 1위 확보가 예상됨
 - TV는 1위(25%)이며 필립스(14%), 소니(12%), LG(8%) 순임
 - 금년도 유럽내 300억불 매출 예상
 - 첼시광고료는 연1,00만£(약 200억원)으로 5년간 5,000만£ 계약

12) Dockland (런던도시재생지역) 답사

□ 런던 도크랜드 재생사업과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런던의 재생과 발전을 추진

○ 도크랜드 재생사업

- 배경 : ① '70년대 도크의 폐쇄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 발생, ② 시장기능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81년,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LDDC)을 설립하여 도크랜드 개발사업을 추진

* 정부의 재정지원 및 토지매각 재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강제 구매에

의한 토지 매입권 등을 보유

- 주요 성과 : ① 2,600만㎡ 상업 및 산업 지구 건설, 24,000 주택건설, ② 18억 6,000만£의 공공 투자에 의한 77억£의 민간투자 유발, ③ 재개발을 위한 1,066 에이커의 토지 판매

○ 런던 동부 및 Thames Gateway 재개발 사업

- 런던 Docklands 보다 10배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서 런던 방치지역의 1/3을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추진
 - * 이상의 고취, 높은 수준의 교육 및 비즈니스 혁신 제공 등의 방향을 설정
 - * 사업목표 : ① 2016년까지 255,000개의 일자리 창출, 142,000호의 주택 제공, ② 전략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유관 공공기관 참여 유도
 - * '03년, 주택지구 건설 18% 수준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사업 추진의 전기 마련



<도크랜드 상업지구>



<도크랜드 주거지구>

3. 정책적 시사점

1) 영국

가. 최근의 런던현황

- 최근 영국은 제조업의 유치보다는 금융 및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런던과 그 주변지역은 고임금, 고지가 등으로 제조업 자체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존 외투기업들이 脫영국화가 많은 실정임
 - 런던은 금융서비스 중심도시로 공장취업인구*는 전체의 2~4%에 불과
 - * 공업용지는 8,000ha → 4,500ha로 감소추세임
 - 최근 런던지역의 높은 땅값과 고임금, 환경문제등으로 런던 및 주변지역*의 제조업 본사(지부)는 중국, 인도** 등 외국으로 이전함
 - * 도심지역은 600£/m²(137만원) , 웨스터민스터는 1,300£/m²(297만원)
 - ** 영국 근로자의 고임금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항공(BA)의 티켓팅함
 - 20년후 9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갖고 있으며, 금융, 비즈니스, 법률, 회계 등이 주요대상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에 관심이 많음
 - 런던시는 땅값이 비싸고 환경문제 등으로 공장입지가 곤란하며, 고부가가치의 금융서비스 위주의 업무용 빌딩 건축에 주력함

나. 수도권정책의 방향전환 배경

- 입지규제 정책의 부작용 인식
 - 사무실허가제로 1967년 전국사무용건물 신축허가 건수의 1/3을 차지하던 런던지역에서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드는 등 사무실 면적 규제 측면에서는 효과가 발생
 - 그러나, 기존 건물의 엄청난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여 재정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 입지 약화를 초래
 - 1972년 기업체의 본사건물 신축규제와 외국기관의 사무실 임대료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거쳐 1979년 폐지

< 수도권 완화 정책 >

- 사무실개발허가제(ODP)의 폐지
 - 1965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9년에 폐지
 - 적용지역: 초기에는 런던지역의 사무실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점차 동남부지역, 동잉글리아지역, 동부 및 서부 미들랜드로 확대하여, 최대 62,000km²까지 확대
 - 적용대상: 시행초기에는 연면적 280m² 이상의 사무실이었으나 점차 완화되어 1977년엔 2,800m² 이상의 사무실로 규제대상을 축소
 - 허가권자: Greater London Council
 - 근거법: 사무소 및 공장개발규제법
 - 폐지사유: 사무실부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금융서비스 등지식기만 서비스업의 약화
- 산업개발허가제(IDC)의 폐지
 - 1947년 시작하였으나 1982년에 폐지
 - 적용지역: 지원지역(Assisted area)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전 지역. 단, 런던시를 포함한 런던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강한 규제를 함
 - 적용대상: 초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465m²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0년

대 후반에 런던이외의 수도권지역은 1,160m² 이상으로 완화

- 허가권자: 통상산업부
- 근거법: 도시및지역계획법
- 폐지사유: 지역경제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 및 제조업을 위주로 한 공장용지 수요의 해외 이탈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우선순위의 변화

- 1976년 IMF위기, 1970년대 런던권 경제침체를 겪으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비판 대두
- 런던과 파리를 잇는 영불터널의 개통 및 EU통합으로 파리권과의 경쟁에 관심
- 1990년대 보수당의 집권과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정책우선순위의 전환하여 지역격차해소보다는 런던권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
- 지역격차해소문제보다 사회계층간 격차해소 및 복지에 관심
- 1991년 런던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런던:세계도시' 보고서에서 세계도시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혁신조치를 정부에 건의한 이후 런던지역계획을 혁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성

다. 시사점

□ 영국의 지역정책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 흐름은 영국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런던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과거의 산업화 사회에서 런던지역으로 산업·인구 집종의 문제보다 국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더 이상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
- 1970년대 IMF위기, 런던도심 경제쇠퇴, 영불해저터널로 인한 생활

권의 확대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포기의 직접적 원인

- 1970년대 런던의 경제쇠퇴는 수도권정책수단에 따른 입지규제보다 영국의 경제불황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
- 1970-80년대 당시 런던의 사무실 규제는 부동산가격 상승, 금융서비스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공장건축규제는 지역경제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이 결과, 런던은 기업과 은행의 입지가 촉진되어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됨

* 전세계 증시(거래량)에서 런던 증시는 약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특히, 뉴욕,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세계 거대도시와의 경쟁을 중시 하며, 영국내 균형발전보다 세계 주요 거대도시와의 경쟁에 치중

- '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증가를 예상하여 낙후지역인 런던 동부지역의 개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
- 런던플랜('04)의 경우도 런던지역내의 지속적인 경제와 인구성장, 세계도시로서의 런던시 역할 제고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 런던의 경제성장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하다는 확신

< 2004 런던플랜 >

☐ 런던계획(London Plan)의 개요

- 2000년 시민이 뽑은 런던시장과 시 의원으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에 의하여 작성
- 4년간의 연구,검토,홍보과정을 거쳐서 2004년 2월 출간, 2006년6월에 수정, 보완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월드시티 런던의 도시계획과 개발방향을 제시

☐ 런던계획(London Plan)의 내용

- 런던의 위상
- 전반적 개발전략
- 주제별 정책
- 상호관련 정책
- 권역별 계획
- 런던플랜의 실행계획

☐ 런던계획(London Plan)에서의 수도권정책 방향

- 2004 런던계획은 세계화, 자유무역, 자본 및 인적자원의 이동 등 세계적 경제조류의 변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명기
- 즉, 런던계획은 이러한 추세에 순응하여 세부목표로 오픈스페이스를 보존하는 성장수용, 런던내 지역별 성장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방향을 정함
- 2004 런던계획은 영국의 수도권 정책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개정된 계획법체계에 의한 지자체의 지역개발전략임. 처음부터 지역편중 등을 고려할 이유나 동기가 없음

2) 프랑스

가. 2000년 SRU법 제정 이후 국토계획체계의 유연화 추진

□ (광역계획)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SD에서 전략적 방침 중심의 SCOT로 전환

- 상위계획에서 전략적 지침 중심으로 전환
- 토지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기성시가지의 전략적 재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 시도
- SCOT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은 PLU에서 U지역(시가지지역)의 신 규지정을 금지하여 체계적 도시정비 유도

□ (도시계획) 토지소유 관점의 POS에서 유연화된 PLU로 전환

- 도시계획의 규범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 사이에서 경직성을 없앴
- NB지역 (건물이 있으나 주변지역이 보호되고 있어 시가지 확대가 예정되지 않는 지역) 폐지
- 기존 POS의 N지역에서 지역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점위에서 개발 허용
- 황폐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등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나. 기존 경직적인 SDRIF 2015를 대체하기 위한 SDRIF 2030 수립

□ 파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추진

- SDRIF 2015는 파리 수도권의 지위와 매력성 유지에 기여하였으나 EU주변 대도시권 등과의 경쟁을 위한 세계 대도시권으로의 발전전략 한계

- SDRIF 2030에서 경제적 매력도 증대 등 세계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을 추가 수립

□ 수립권한의 지방이양 및 상하계획간 연계 강화

- 1995년 수도권계획 수립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일드프랑스 레지옹으로 이양됨에 따라 레지옹 단위에서 SDRIF 2030 수립 추진
- 도시계획권한이 코뮌에 있어 상위계획에서 결정한 계획의 협의 곤란하여 50회 이상의 워크숍, 180회 양케이트 조사, 1,300코뮌과 협의 진행 추진
- 과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공공에 대한 건설허가, 레지옹 공공서비스에 대한 건설 및 이용허가 아그레망 발급권한을 지방이양하고 일부 제한적 아그레망을 제외하고 폐지
- 20년전 기준으로 허드방스 구역을 차등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 레지옹, 민간 간 역할분담, 일드프랑스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개선논의 진행중

다. 시사점

□ 70년대까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주력하였으나, 80년대 EU통합을 추진하면서 유럽내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파리의 경쟁력 문제가 이슈화 된

- 유로를 사용함에도 올림필개최지 경쟁에서 런던에 패하자 파리 경쟁력에 대하여 이념을 초월하여 경각심이 발생
-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큰 전환을 가져옴

□ 일드프랑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파리지역의 Grand

Paris Plan을 추진 중

- 교통체계 개편(순환형->방사형), 6개 마천루 프로젝트 등 파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파리의 경계뿐만 아니라 파리를 관통하는 행정방식, 교통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학까지 새로 구상할 것을 요구(사르코지)

□ 런던대도시권 등 세계의 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런던광역정부 등 외국의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

< Grand Paris >

□ Grand Paris 개념

- 현재 프랑스정부가 계획을 입안중인 Grand Paris는 파리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혀
 - 파리시 남쪽에 인접한 Essonne(91)지역에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단지(Plateau de Saclay)'를 조성하고
 - 북동쪽에 인접한 Seine-St-Denis(93)지역에 신도시지구(Plaine de France)를 개발함으로써
 - 약 762km² 면적에 6.3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새로이 조성된 수도권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됨
- * Grand Paris는 기존의 파리시 면적만으로는 세계화시대에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 광역화한 파리권의 경쟁력 추구

□ Grand Paris 사업의 5대 목표

- 강한 경제적 활력 제고
-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지원
- 새로운 생태적 환경변화에 대비
- 미래 수요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 건축설계 측면에서 문화적인 매력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

□ 사업추진 일정

- 2008.5.7: 사르토지 대통령, Grand Paris 사업 정책목표 지시
 - 2008.5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50여명 규모의 작업반 구성
 - 2008.9.23 : Chrisitan Blanc 장관, 수도권지역 국회의원, 파리시장 등을 초청, Grand Paris 사업관련 의견 교환
 - 2008.10-12. : Christian Blanc 장관, ‘과학기술단지’ 및 ‘신도시지구’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발표 예정
 - 2009.2-4. : Grand Paris 사업관련 기본계획 및 설계방향 발표예정
- * 지역의 보존을 원하는 기존 코뮌들과의 의견대립이 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소임